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68호

2026.03.12.(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미·중·반도체	美, 中 기업당 엔비디아 칩 공급 제한 검토	중동·에너지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공급망 비상
중국·반도체	中,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경고	중동·알루미늄	중동 상황에 알루미늄 가격 급등
미국·반도체	엔비디아, H200 칩에서 차세대 칩으로 생산 전환	중국·반도체	中, '중국판 ASML' 만들어 반도체 굴기
중국·팅스텐	中 수출통제 여파로 텅스텐 가격 급등	일본·희토류	日, 말레이시아 희토류 ODA 협력 발표

###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통상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中은 희토류, 美는 반도체 AI 칩... 경쟁 구도 심화
중동·에너지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공급망 비상
중국·반도체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中,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경고... 반도체 굴기의 서막

###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인동	인동: 중국발 리스크 속에서 떠오르는 한국 공급망의 전략적 기회
--------	-------------------------------------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日, 비축유 방출 준비 지시...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	---------------------------------

## II. 월간 공급망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금융시장 영향 및 현지 전망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 IV. 공급망 소식통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b>미-중, 반도체</b> 美, 中 기업당 엔비디아 칩 공급 제한 검토	3.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H200 수출을 중국 업체당 7.5만 개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임</li> <li>✓ 이는 중국 주요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전달한 희망 주문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li> </ul>	SCMP
2	<b>중동, 에너지</b>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공급망 비상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C+가 4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음에도 유가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li> <li>✓ 중동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선박 통행량이 급감했기 때문임</li> </ul>	파이낸셜 타임스
3	<b>중국, 반도체</b> 中,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경고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 직원들의 업무 계정 접속을 막자, 중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경고함</li> </ul>	로이터
		3.10.(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넥스페리아 자회사는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12인치 웨이퍼 기반 제품 생산을 시작함</li> </ul>	로이터
4	<b>중동, 알루미늄</b> 중동 상황에 알루미늄 가격 급등	3.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상황으로 인해 카타르 제련소인 카탈룸이 가동을 중단함</li> <li>✓ 주주사인 노르스크 하이드로가 고객들에 불가항력 조항*을 발표하며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함</li> </ul> <p><small>* 공급 의무 불이행이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small></p>	mining.com
5	<b>미국, 반도체</b> 엔비디아, H200 칩에서 차세대 칩으로 생산 전환	3.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H200 칩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으로 전환함</li> <li>✓ 이는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li> </ul>	파이낸셜 타임스
6	<b>중국, 반도체</b> 中, '중국판 ASML' 만들어 반도체 굴기	3.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반도체 업계는 5년간 국력을 모아 '중국판 ASML'을 만들어 미국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li> <li>✓ 이들은 국가 주도로 자금·인력을 관리해 경쟁력 있는 선두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li> </ul>	로이터
7	<b>중국, 텅스텐</b> 中 수출통제 여파로 텅스텐 가격 급등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일 중국 '흑 텅스텐 정광' 가격은 톤당 91.8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06% 상승함</li> <li>✓ 이는 ▲재고 부족 ▲산업용 수요 증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됨</li> </ul>	한국경제
8	<b>일본, 희토류</b> 日, 말레이시아 희토류 ODA 협력 발표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희토류 채굴·정제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인력 육성을 지원할 계획임</li> <li>✓ 이는 희토류 분야에서 ODA가 사용되는 첫 사례로, 중국 독점 구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됨</li> </ul>	닛케이 아시아

## 주간 이슈 포커스

### 1 마·중 공급망 이슈 돌보기

#### 마·중, 통상 中은 희토류, 美는 반도체 AI 칩... 경쟁 구도 심화



#### 中 희토류 수출통제로 美 물량 부족 현상 심화

SCMP는 중국의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으로 인해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고 보도함(2.27.)

\* 중국산 희토류 원료·기술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할 때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조치

중국은 '25.4월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에 17톤의 이트륨 제품을 수출했는데, 이는 조치 이전 333톤과 비교하면 1/20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임

\* 이트륨은 은백색의 연성 금속으로, 디스플레이의 적색 형광체, 레이저 재료, 첨단 합금의 첨가제로 사용됨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스칸듐 비축량이 수년이 아닌 수개월만 버틸 수준이라고 평가해, 스칸듐 역시 공급 부족 현상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됨

\* 스칸듐은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알루미늄과 합금 시 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항공기 및 연료 전지 전해질에 사용됨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SemiAnalysis는 "차세대 5G 칩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미국 내 스칸듐 생산량이 전무한 가운데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이 없다"며 우려를 포함

출처: SCMP(2.27.)

#### 美, 中 기업당 엔비디아 칩 7.5만 개로 공급 제한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H200'의 대중국 수출 물량을 업체당 7.5만 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3.3.)

이는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각각 엔비디아에 전달한 H200 희망 주문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H20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AMD의 MI325 제품을 구매할 때도 유사한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함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인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안보 관련 지적이 나오자, H200만 수출을 허용하고 전체 대중국 수출량은 100만 개로 제한함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 GPU로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GPU 서버를 분해한 후 중국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적발됨

파이낸셜타임스는 알리바바·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최신 대형언어모델(LLM)을 동남아시아 여러 데이터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보도함('25.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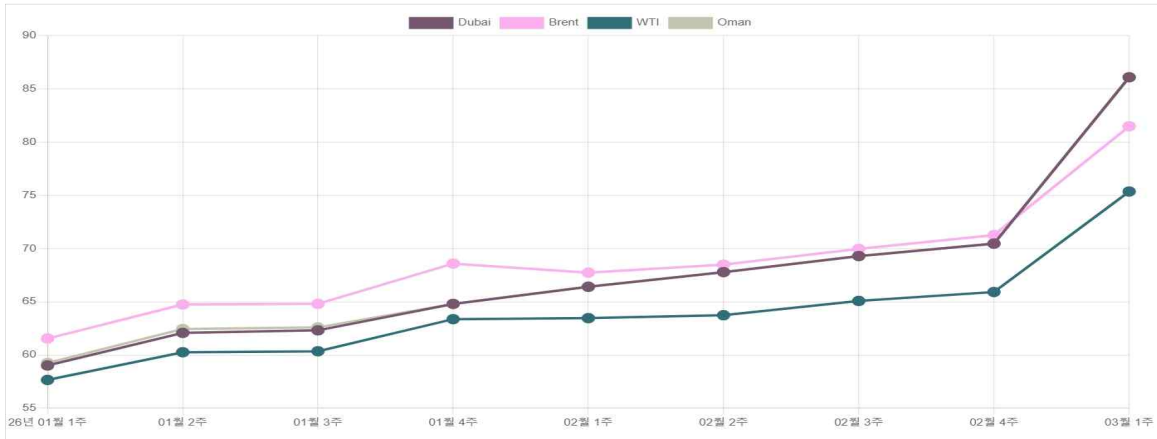
허드슨 연구소는 브로커·리셀러에 대한 제재 및 금융·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밀수망 추적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제재 수단 강화를 촉구하기도 함

출처: 블룸버그(3.3.), 조선일보('25.12.22.), 파이낸셜타임스('25.11.26.), 허드슨 연구소('25.3.24.)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중동, 에너지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공급망 비상**

파이낸셜타임스는 OPEC+가 4월부터 원유 증산(20.6만 b/d)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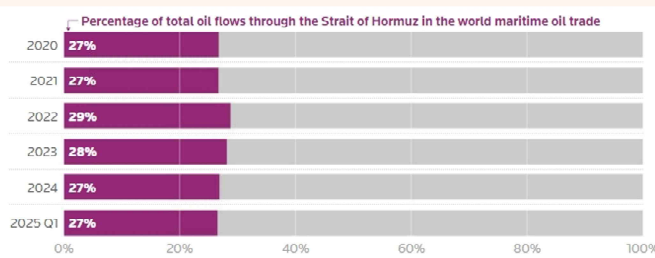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며 선박 통행량이 급감했기 때문임

▶ 케이플러(Kpler)는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공습을 예상해 2월 석유 수출량을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혔는데, 단기적 완충 효과가 사라지면 유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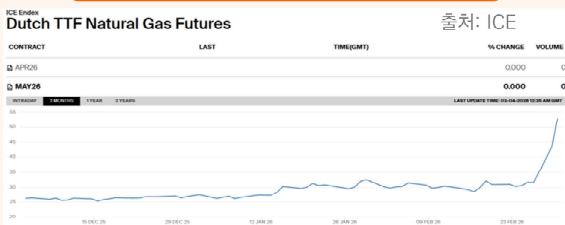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통행량 80% 감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국제 원유 수송 비중 출처: 미국 에너지정보보청(EIA)



-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30% 수준 (약 1,500~2,100만 b/d), LNG 수송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
- 케이플러 데이터는 중동 상황 이후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힘

**카타르 LNG 생산 중단으로 글로벌 LNG 가격 폭등**



- 카타르에너지\*는 3.2일, 산업단지에 대한 이란 드론 공격을 이유로 LNG 및 관련 제품 생산을 중단함  
 \* '25년,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약 8천만 톤)를 생산함
- 이에 글로벌 LNG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석유 수요 증가를 극대화해 유가 상승 압력을 심화함

**OPEC+ 증산 물량의 한계**



- OPEC+는 하루 20.6만 배럴을 증산하겠다고 했지만, 이 물량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물량임
- 로이터는 OPEC+의 결정에 대해, "호르무즈를 통해 약 2천만 b/d 유량이 막힌 상황에서는 거의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함

출처: 알자지라(3.3.), EIA(3.3.), 로이터(3.3.), 파이낸셜타임즈(3.1.)

③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중국, 반도체 中,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 경고... 반도체 굴기의 서막

시가 선정한 이슈

2026.3.1일부터 3.10일까지의 공급망 이슈를 분석한 결과, 3.9일 "네덜란드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 직원들의 업무 계정 접속을 막은 이후 중국 상무부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경고한 것"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Q. 이번 지정학 리스크는 과거 갈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과거 미·중 기술 갈등은 서방 기업 vs 중국 기업 구도였지만, 넥스페리아와 같이 "중국 자본이 인수한 서방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 사례의 특이사항입니다. 이는 한 회사 안에 ▲중국의 소유권 ▲EU의 산업·고용 ▲미국의 안보 우려가 동시에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Q. 첨단 반도체 칩이 아닌 범용 반도체 칩이 무기화된 이유는?

A. 넥스페리아는 전 세계 차량용 범용 반도체의 약 40%를 공급하고, 이 중 70~80%가 중국에서 생산·가공되는 구조라 "싸고 흔한 칩"이지만 글로벌 완성차의 필수 부품입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넥스페리아 칩이 500개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강하게 통제하면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율은?

A. 국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은 5% 이하 수준으로,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국내 팹리스·파운드리·완성차 등 20여 개사가 참여하는 민간 연합을 만들고, "5% 이하인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 윈테크 vs 넥스페리아 타임라인

시점	사건 및 내용
'25.9.30.	<b>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b> · (근거) 1952년에 제정된 '물품 가용성법' · (배경) 넥스페리아는 '24.12월 미국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된 중국 윈테크 테크놀로지의 자회사이므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됨
'25.10.4.	<b>중국,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 수출 금지</b> · 네덜란드의 조치에 대응해, 중국 상무부는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패키징 된 칩의 대외 수출을 제한·금지를 발표함
'25.11.1.	<b>중국, 넥스페리아 칩 수출 예외 허용 시사</b> · 중국 상무부는 일부 넥스페리아 주문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에 예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개별 업체들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배경) '25.10.30.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한적 완화 합의에 도달
'25.11.19.	<b>네덜란드, 넥스페리아에 개입 중단</b>
'25.11.26.	<b>윈테크 vs 넥스페리아 법정 공방 본격화</b> · 윈테크,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해 "암스테르담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함
'26.3.3.	<b>넥스페리아, 중국 자회사 직원 계정 차단</b>
'26.3.7.	<b>중국,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 경고</b> · 중국 상무부, 네덜란드의 조치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재연될 시, 그 책임이 전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다고 경고함

출처: 로이터(3.7., '25.11.24.), 야후 파이낸스('25.11.21.)

▶ 범용 반도체 칩 vs 첨단 반도체 칩

구분	범용 반도체 칩	첨단 반도체 칩
정의	보통 28nm 이상의 성숙 공정에서 생산되는 MCU, 전력·아날로그, 단순 로직 등 수십 년간 지속된 공정	5nm, 3nm, 2nm 등 최신 공정에서 생산되는 고성능 CPU·GPU 등으로, 저전력으로 최고 성능을 냄
사용 분야	자동차용 MCU, 가전제품 제어, 산업용 제어기, 저가 IoT 기기 등 일상·임베디드 시스템	스마트폰·PC·서버의 CPU·GPU,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자율주행용 고성능 칩 등 연산 집약적·고부가 장비
특징	단가가 낮고(수 달러 이하), 교체 주기가 길어 (10~20년) 한 번 설계되면 오랫동안 유지됨	단가가 높고(수백~수천 달러), 세대교체가 빨라(2~3년) 설계·양산 위험성이 높음
전망	· 전기차·자동차 전장화, 산업 자동화, 저가 IoT 확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이 생산능력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공급 과잉·안보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음	· AI·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의 확산으로 고성능이 지속될 전망임 · 단, 비용이 많이 들고, 미·대만·한국 등 일부 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해 기술·안보 경쟁의 최전선이 됨

출처: Semiconductor Engineering('26.3.10.), CSIS('23.3.3.)

◆ **산업·품목 심층 분석**

**글로벌, 인듐**    **인듐: 중국발 리스크 속에서 떠오르는 한국 공급망의 전략적 기회**

최근 중국발 투기 수요와 주요 생산국(중국, 한국 등)의 생산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듐은 10년래 최고가를 경신함. 한때 LCD 패널이 사용되던 구시대의 소재로 여겨지기도 했던 인듐은, 디스플레이·터치패널·태양전지·센서 등 다양한 산업의 필수 소재이며, 고주파·고성능 전자부품과 차세대 광전소자 분야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인듐 소재의 재활용,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통해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 중요함. 이번 산업·품목 심층 분석에서는 인듐 가격 변동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인듐 공급망의 기회 요인을 알아봄

**인듐 가격 급등: 중국발 투기와 생산 증가세 둔화**



인듐 가격은 3.2일 672.56달러/kg을 기록해, 전월 동기(411.76달러/kg) 대비 약 63% 상승했고, 전년 동기(348.99달러/kg) 대비 약 93% 상승함. 이는 ▲중국발 투기 수요 급등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 둔화로 인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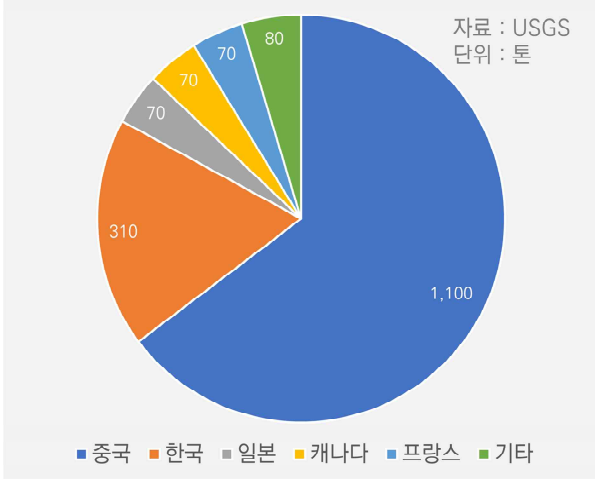
'25년 하반기부터 중국 리양 중련금 계열 금속거래소에서 인듐 선물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기가 급증했고, 이에 인듐 가격이 급등해 서방권의 실물 가격까지 견인함. '23~'25년에 걸친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그리고 반도체·태양광 관련 소재를 둘러싼 미-중 공급망 갈등은 중국산 희유금속이 언제든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시킴. '25년 하반기에 인듐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경제 주체들은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인듐도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품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5년 전 세계 인듐 생산량은 약 1,100톤으로 '24년 생산량(1,090톤)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중국·한국 등 주요 생산국의 인듐 생산량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 중국은 세계 1위 인듐 생산국으로, '25년 기준 760톤을 생산하여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했음. 단, 중국은 내수 소비·비축·재수입이 동시에 증가해 순수출 여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한국과 기타 제련소들은 아연 제련의 수익성과 정광 수급을 고려해 스팟 공급\*을 축소할 경향이 있음. 즉, 인듐 물량이 특정 고객과의 장기 계약으로 묶이고, 시장에 떠다니는 스팟 여유분이 줄어들면서 바이어들이 체감하는 공급부족이 심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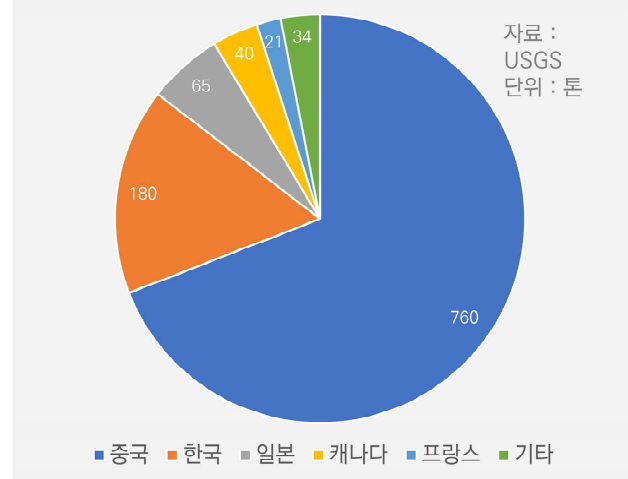
\* “그때그때, 한 번씩” 거래되는 현물 위주의 단기 공급 물량임.

## 글로벌 인듐 공급망 동향

### 국가별 인듐 매장량 현황 ('25)



### 국가별 인듐 생산량 현황 ('25)



중국과 한국의 인듐 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85.5%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인듐 공급망은 중국과 한국에 편중됨**. 중국의 인듐 공급망은 거대한 내수·재활용·비축 시스템을 축으로 한 정책 통제형 구조인 반면, 한국의 인듐 공급망은 고려아연 단일 제련소 구조임

중국에서는 다수의 아연 제련소와 인듐 정련·재활용 업체가 수직적으로 분포해 있음. 광산에서 채굴된 다금속 정광이 대규모 제련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이 과정에서 슬래그·더스트·폐액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인듐이 회수돼 정제 인듐과 산화물 등으로 가공됨. 이는 디스플레이·태양전지·반도체 부품 등 방대한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때 사용이 끝난 제품을 전문 재활용 업체가 회수해 다시 인듐을 뽑아내는 **순환 구조가 병렬적으로 작동함**. 여기에 수출통제와 전략적 비축과 같은 정책이 시행돼,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듐 생산국인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인듐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역할함**

반면, 우리 인듐 공급망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고효율·신뢰성에 초점이 맞춰짐**. 우리나라 인듐은 사실상 고려아연의 울산 온산제련소가 대부분 담당하며, 수입 아연정광과 제련되고 남은 슬래그·더스트·폐액에서 인듐을 고회수율로 뽑아 99.99% 이상의 고순도 인듐 잉곳을 만들고 있음. **한 곳에 대형 설비와 공정이 집중돼 제련 효율과 회수율이 높고, 연 150톤 수준의 정제 인듐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세계 최대 비(非)중국 단일 생산자임**. 고려아연의 정제 인듐은 국내 디스플레이·전자업계로도 가지만, 상당 부분은 미국·일본 등 동맹국의 소재사와 트레이더에게 장기 오프테이크 형태로 공급됨

### (참고) 인듐 품목 특징



구분	내용
물리적 특징	은백색의 부드러운 금속으로, 연성과 전성, 전기·열 전도성이 우수함. 녹는점 약 156.6℃, 끓는점 약 2,070℃로, 저용점 합금·솔더(땀납)로 쓰기 좋음
화학적 특징	상온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물과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산(acid)과 반응해 인듐염·산화물을 생성함. 대표 화합물로 산화인듐(In <sub>2</sub> O <sub>3</sub> ), 인듐주석산화물(ITO), 염화 인듐(InCl <sub>3</sub> )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도성·투명전극·촉매 등으로 사용됨
제조 과정	아연·연·주석 광석의 부산물로 존재하여, 대부분 아연 제련 공정에서 부산물로 회수됨. 이에 인듐 공급은 아연 광산·제련소 가동률, 부산물 회수 설비 투자, 재활용 체계에 크게 좌우됨
산업적 용도	투명전극·디스플레이·터치패널 / 태양전지·광전소자 / 반도체·전자부품·센서 / 특수 합금·기계·에너지

## 고려아연, 아시아-북미 양대 허브로 기회 확대

1.2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인터뷰에서 '25.12월에 인수한 니르스타(Nyrstar) 클락스빌 제련소 부지의 가치를 공개함. 이곳에 보관된 약 60만 톤의 폐기물에는 아연·구리·납·은·갈륨·게르마늄 등 고부가가치의 희유금속 및 전략 품목이 대거 포함됨

클락스빌 제련소는 미국 테네시주에 고려아연이 짓는 대규모 비철금속 제련소로, 인듐을 포함한 13종의 전략 광물이 생산 대상임. 이는 '크루서블 프로젝트'로 불리며, '미국판 온산제련소'를 건설해 연간 약 10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하고 54만 톤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함. 고려아연은 온산에서 축적한 "아연 제련 부산물에서 인듐을 고효율로 뽑아내는 노하우"를 미국에 이식해, 미국 측 우방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체 공급처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음



▲ 美 테네시주 클락스빌 아연 제련소 (출처: 니르스타)

우리나라는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통해 온산-클락스빌 양대 허브를 구축하게 됨. 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미국 내 인듐 생산 거점이 생겨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의 북미 수요와 직접 연결됨. 또한, 우리 기업은 인듐 및 인듐주석산화물(ITO) 재활용, 고부가가치 인듐 소재 개발 등에서 클락스빌과 연계해 공동 프로젝트·합작투자·라이선스를 추진할 수 있음. 추가로, 최근 중국발 투기와 수출 통제로 인해 인듐 가격이 급등하며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클락스빌 제련소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향후 인듐 관련 장기 계약과 전략 비축, 재활용 정책을 설계할 때 교섭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단, 향후 북미 측 수요가 커지면, 우리 인듐 잉곳과 중간재를 서방권에 수출하고, 고부가 ITO 타깃\* 등 첨단 부품은 해외에서 다시 수입하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고성능 ITO 타깃, 차세대 TCO\*\*, 광전소자용 인듐 소재와 같은 전방 산업 및 고부가가치 중간재 산업 제조 역량을 키워, 원료와 소재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LCD, OLED, 터치패널 등 평판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높은 투명도와 낮은 저항성을 구현하는 고밀도·고순도 제품

\*\* 투명전도성산화물(Transparent Conductive Oxide), 인듐주석산화물(ITO)의 단점인 낮은 유연성과 매장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에 적용 가능한 고투과율·저저항 신소재 기술

🔥 출처

- 조은임. (2025, November 18).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en/en-industry/2025/11/18/WFSWVLAWWZCP3NK4ZMK2N3JTPU/>
- Usgs. (2026).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 Hyunjoo jin, Heejin kim, & Ernest scheyder. (2025, December 16). 로이터.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orea-zinc-board-discuss-plan-build-smelter-under-us-joint-venture-source-says-2025-12-15/>
- Anmol choubey. (2026, February 9). 로이터.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indium-hits-highest-prices-decade-chinese-speculation-supply-risks-2026-02-09/>
- Jing lin. (2024). Security Evaluation of China's Indium Industrial Chain: Perspective on Substance Flow throughout the Whole Life Cycle (Vol. 47). Institution of Chemical Engineers.
- 고려아연. (2025, February 14). PR Newswire. Korea Zinc Solidifies Critical Role in U.S.-Korea Economic Security Amid Chinese Export Controls as the World's No.1 Indium Producer
- 고려아연. (2025, December 15). Korea Zinc Partners with the U.S. Department of War and U.S. Department of Commerce to Build a State-of-the-Art Critical Minerals Smelter in the United States with \$6.6 Billion of Capital Expenditures Total investment of \$7.4 billion including working capital and financing costs
- Ling xiao. (2026). Indium Resource Industry Chain Status and Supply and Demand Trend Analysis (Vol. 235). Minerals Engineering.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안보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넛

**에너지** | 日, 비축유 방출 준비 지시...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 중동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내 석유 비축기지에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함(3.10.)
- ▶ 일본은 현재 약 250일분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기 이전에 출발한 원유도 일본 도착을 앞두고 있어 즉각적인 공급 중단을 피함

출처: 닛케이(3.10.)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1주)**

**비철금속** |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동·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년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동	9,147	9,945	8.7%	13,134	12,932	△1.5%
니켈	16,812	15,160	△9.8%	17,571	17,208	△2.1%
아연	2,779	2,870	3.3%	3,339	3,286	△1.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확대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급증으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니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 전반에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中 정부의 철강 과잉생산 단속으로 니켈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 단,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업용 산림 사업지 압류, LME 니켈 재고량 감소 및 반출 대기 물량 증가가 상기 하방 압력 일부 상쇄

**철강** | 中 경기 부양책 제시 및 구매 축소 통보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년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8.38	△20.6%	118.90	134.43	13.1%
원료탄	259.06	190.27	△26.6%	193.46	194.65	0.6%
철광석	109.51	101.90	△6.9%	98.50	100.57	2.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Global Coal Index 기준), 원료탄(중국 해난성 EXW 기준),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철광석) 中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 재정 지원 수단 제시 및 트레이더에 대한 철광석 일부 품목 구매 축소 통보로 철광석 공급 우려가 확산돼 철광석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3월 1주)**

**희소금속** | 생산 감소 전망으로 탄산리튬 가격 ↑, 배터리 양극재 수요 개선으로 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5년	'26.2월	전년비(%)	2.4주	3.1주	전주비(%)
페로망간	1,064	1,028	△3.4%	-	1,028	-
탄산리튬	10,487	20,802	98.4%	21,471	22,857	6.5%
수산화리튬	9,886	21,872	121.2%	22,489	23,162	3.0%
코발트 (U\$/lb)	19.82	29.05	46.6%	29.1	29.8	2.6%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42,539	273,929	12.9%	295,000	294,000	△0.3%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6,432	163,493	113.9%	178,000	173,300	△2.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Magnets 0.0001%max),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호주산 스포듀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및 일부 생산업체의 감산·가동률 조정이 예상되면서 탄산리튬 주간 평균 가격 상승세 유지

☐ (수산화리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올해 수출물량을 앞당겨 생산하며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수요가 개선되며 수산화리튬 가격을 지지

**에너지** | 중동 상황 격화에 따른 물류 비상으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5년	'26년	전년비(U\$/bbl)	2.4주	3.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69.36	68.95	△0.41%	70.47	86.09	15.62%
브렌트유	68.19	69.45	1.27%	71.27	81.49	10.21%
WTI	64.73	64.85	0.12%	65.92	75.36	9.45%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중동 상황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이라크의 감산 조치가 유가 상승 유발

- 🔍 2.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동으로 이란 주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 이라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수출 차질 및 저장 여력 고갈로 인해 약 150만 b/d 감산 조치를 시행했고, 며칠 내 300만 b/d 이상까지 감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힘
- 🔍 美 연방준비은행은 중동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연준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함

## 월간 공급망

### ◆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금융시장 영향 및 현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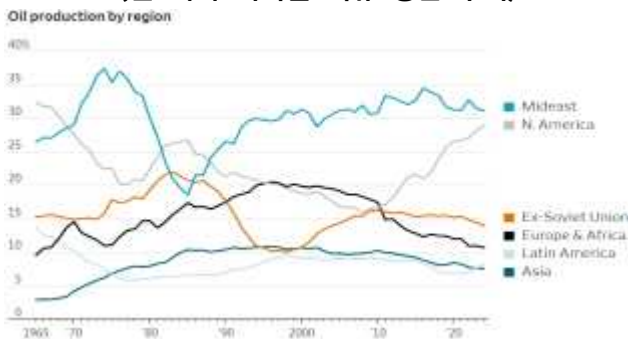
원문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제26-18호

#### 1. 개요

#### ☐ 중동 상황 고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긴장이 확대되며 글로벌 원유·가스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후 최근 90달러 내외로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
  -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통로로, 시장에서는 해당 해역의 긴장 고조가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
  - ▶ 현지는 중동 상황이 단기적 공급 차질뿐 아니라 선박 보험료 상승, 운송 지연,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에너지 시장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 \* ▲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무역적자 감소, ▲대중국 적자 축소(↓32%), ▲상품·서비스 수출 역대 최고치(3.4조 달러, ↑6.2%) 달성, ▲실질 GDP 연율 2.3% 성장 등 가시적 성과 제시
- ② 미국 정부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위험의 확대 요인 가능성으로 주목
  - ▶ 특히 미국은 셰일 생산 확대와 전략비축유(SPR)를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할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및 산업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

〈전 세계 지역별 석유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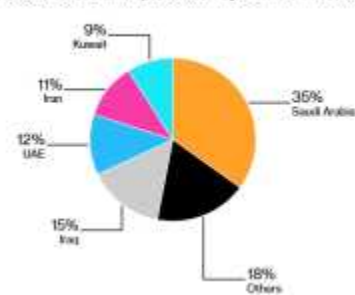


\* 전 세계 석유 생산에서 중동 지역 비중은 약 1/3 수준

[자료: Energy Institute, WSJ 인용]

〈OPEC 회원국별 석유 생산량 비중〉

Iran is OPEC's Fourth-Largest Producer  
 Share of the cartel's overall oil production by member in January 2026



\* 이란은 OPEC 회원국 중 네 번째 규모의 석유 생산국

[자료: 블룸버그]

## 2. 상세

### ☞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영향

-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량은 하루 약 2천만 배럴 수준으로, 글로벌 해상 원유 교역의 핵심 경로로 평가
  - ▶ 시장에서는 해당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LNG 수송 지연 및 보험료 급등 등으로 공급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
  -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수출 물량 상당 부분이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상황
- ☞ 국제 유가는 이번 상황 이후 배럴당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며,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
  - ▶ LNG 시장 역시 카타르 등 중동산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아시아 및 유럽 가스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

### ☞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파급 효과

- ☞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가능성과 금융시장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는 현상에 주목
  - ▶ 에너지 가격은 CPI에서 직접적인 비중분 아니라 운송·물류·생산 비용 상승을 통해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
  - ▶ 중동 긴장 고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화 및 금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전형적인 위험 회피 흐름이 목격
- ☞ 국제 유가는 이번 상황 이후 배럴당 90달러 내외 수준까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며,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
  - ▶ LNG 시장 역시 카타르 등 중동산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아시아 및 유럽 가스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

### ☞ 현지 반응 및 전망

- ☞ 현지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가능성 제기
  - ▶ 중동 상황이 심화될 경우 해상 수송, 에너지 인프라, 지역 대리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 ▶ 항공·해운·화학·자동차 등 에너지 비용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비용 부담 확대 제기
  - ▶ 미국과 유럽은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LNG 인프라 투자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6년 美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USTR은 현지시간 3월 2일 「2026년 통상정책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통상정책의제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기반한 통상질서 구축과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을 목표로 하는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주의 무역협정(ART) 프로그램 지속, ▲신규·기체결 무역협정 이행 및 301조 등 통상법 집행 강화, ▲전략산업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USMCA 공동검토 활용,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한 대중(對中) 통상 관계 관리, ▲국제협력에서의 미국 이익 증진 등을 통해 지난해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상정책의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초를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2026년 미국은 관세와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통상정책의제\* 특징

\* 美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통상정책 의제와 무역협정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 2026년 통상정책의제는 현지시간 3월 2일 발표됨

-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당일 지시해 3월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1년 성과를 평가하고 금년도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시

#### 2026년 통상정책의제 6대 과제

- ① 상호주의 무역협정(ART)을 지속 추진하여 무역장벽 완화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
  - ▶ USTR은 프레임워크 합의(Deal)를 법적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춘 무역협정(Agreement)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합의체결국과 협상을 진행 중
  - ▶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의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상호주의적 무역협정(합의)을 활용했으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
- ② 신규·기체결 무역협정과 301조 등 美 통상법 집행을 강화
  - ▶ 신규·기체결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美 통상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집행
- ③ 전략산업과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여 경제안보를 강화
  - ▶ 전략산업의 리쇼어링·무역다변화를 추진하고, 복수국간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을 체결
  - ▶ 생산적 투자(greenfield)는 적극 유치하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CFIUS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④ USMCA 공동검토(Joint Review) 절차를 활용한 對멕시코·캐나다 무역관계 조정
  - ▶ ▲무역적자, ▲불공정 무역관행, ▲비시장경제국의 복미 투자 증가, ▲과잉생산 등 멕시코·캐나다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검토 절차를 활용
- ⑤ 상호주의와 균형에 기반하여 對중국 통상관계를 관리하고, 중국의 美-中 합의('25.10.) 이행을 점검
- ⑥ 다자(WTO) 및 복수의 국가 간 협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최혜국 대우(MFN) 원칙을 재검토

## 📌 평가 및 시사점

- ① 취임 2년 차에 접어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세와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
  - ▶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해 ▲관세정책 전면화, ▲미국 내 생산, ▲상호주의 등에서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 추진
  - ▶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동맹관계보다는 양자 간 거래를 기반으로 한 상호주의 회복을 강조
- ② (상호주의 무역협정 지속) 미국은 상호주의 기반 무역협상 기초를 유지·강화해 무역적자 해소 및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
  - ▶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합의 이행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301조 조사 등 국내법을 활용해 상대국의 무역합의 이행을 지속 압박할 가능성
- ③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 협상 본격화에 대비할 필요
  - ▶ 유럽, 멕시코,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배터리·제련·소재 기업의 이해 관계가 큰 만큼 협상 동향 모니터링 및 전략적 참여를 검토
- ④ (美 중심 USMCA 개정) USMCA 공동검토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복미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은 USMCA 개정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 ▲3국 간 입장 차에 따른 공동검토 지연, ▲개정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현지 투자, 공급망 재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모색
- ⑤ (對중국 견제·관리 병행) 미·중 교역은 전면적 단절보다 '관리된 접근'을 유지하되, 비시장 정책에 따른 구조적 왜곡에 대해서는 지속적 견제를 병행할 전망

## 공급망 소식통

### ◆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작성 KOTRA

# 중동 상황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

수출거래·공급망(원자재 수급) 차질, 물류·통관

**대표 전화** **1600-7119** →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4번(중동아프리카)  
 (상담시간 매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30 제외)  
 ※ 휴대폰에서 전화를 거실 경우, 발신 직후 음성 ARS(2번) 선택 요망  
 ※ 이란 관련문의 : 직통 ☎ 02-3460-3387

**온라인상담**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무역투자24)  
 상담 메뉴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 KOTRA 지원사업

비즈니스 애로접수·상담 ☎02-1600-7119  
 물류 관련 ☎02-3460-7428  
 산업부 긴급수출바우처 ☎02-6004-8400  
 대체바이어 발굴 ☎02-3460-7343  
 공급망 애로 대응 ☎02-3460-7757

###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기관명	애로유형	연락처
재정경제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정부부처·공공기관 대상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 또는 제도개선 건의 접수	02-6000-5778 export119.go.kr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수출기업 계약서 검토 등 무료 법률자문	02-2110-3666 9988law.com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 규격, 시험 지원	02-6240-4770 globalcerti.kr
무역보험공사(K-Sure)	무역보험사고, 환차손 애로 등	02-1588-3884 ksure.or.kr

## 글로벌 경제지표 ['26.3.10일 (화)]

작성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4말	'25말	'26.1말	3/6	3/9	3/10	전일비	전년말비
₩/US\$	1,472.50	1,439.00	1,439.50	1,476.40	1,495.50	1,469.30	△1.75%	2.11%
선물환(NDF, 1월물)	1,473.80	1,440.30	1,438.60	1,473.90	1,493.20	1,467.50	△1.72%	1.89%
₩/CNY	202.38	206.67	207.33	212.95	213.62	213.96	0.16%	3.53%
₩/¥100	932.67	922.20	935.47	935.50	943.47	932.65	△1.15%	1.13%
¥/US\$	157.88	156.04	153.88	157.82	158.51	157.54	△0.61%	0.96%
US\$/EUR€	1.0429	1.1776	1.1917	1.1604	1.1562	1.1628	0.57%	△1.26%
CNY/US\$	7.2992	6.9904	6.9485	6.9039	6.9133	6.8817	△0.46%	△1.55%

\* '25년 평균 환율: (₩/US\$) 1422.04원, (₩/¥100) 951.02원 / '26년 평균 환율('26.1.1일~현재): (₩/US\$) 1,455.55원, (₩/¥100) 931.22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비철금속 \$/톤)

구 분	'25년 최저(해당일)	12/31('25년)	3/9	3/10	전일비	'25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59.56 (5.5)	61.59	125.00	115.20	△9.8	55.6	53.6	
					△7.8%	93.4%	87.0%	
비철금속	구리	8,539.00 (4.9)	12,504.00	12,750.50	12,920.50	170.0	4381.5	416.5
						1.3%	51.3%	3.3%
	알루미늄	2,285.00 (4.9)	2,968.00	3,406.50	3,402.50	△4.0	1117.5	434.5
						△0.1%	48.9%	14.6%
	니켈	13,815.00 (4.9)	16,485.00	17,290.00	17,310.00	20.0	3495.0	825.0
						0.1%	25.3%	5.0%

### 반도체

구 분	'24말	'25말	'25.12말	'26.1말	'26.2말	3/5	3/6	3/9	3월(~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5	18.63	12.25	18.63	26.38	27.13	27.25	2.25	27.17
(%, YoY)	0.5	970.7	567.9	970.7	1,413.2	1,474.3	1,481.5	1,481.5	1,417.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63	10.70	10.40	10.70	11.65	14.75	14.75	15.75	14.92
(%, YoY)	3.9	61.5	56.4	61.5	75.2	123.0	123.0	138.1	123.0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7('24년)	12/27('25년)	2/13	2/27	3/6	전주비(2/27)	전년말비
SCFI	2460.34	1656.32	1251.46	1333.11	1489.19	11.7%	△10.1%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4('24년)	12/24('25년)	1/2	2/19	2/20	2/23	2/24	전주비(2/23)	전년말비
BDI	997	1877	1882	2138	2010	2066	1919	△7.1%	2.2%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 주관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